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여름호 | 2015년 7월 20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우리연합회-국토교통부, 고위직 초청 간담회 가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는 지난 6월 24일 당연합회 회의실에서 제5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 후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권병윤, 신고통개발과장 박지홍, 택시산업팀장 김유인)와 택시정책 전반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신임 김승일 인천조합 이사장을 연합회 이사로 선임 의결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병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때보다 어려운 택시업계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과거와 달리 택시업계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모습이 믿음이 간다고 덕담을 나누고 우리업계의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 했다.

이에 대해 권병윤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부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군이나 우군처럼 여기고 허심탄회하게 건의 하여줄것과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해결과제와 단기적 해결과제를 구분해 정책을 펼칠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은 고급택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주조합 이치현 이사장은 택시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나 한정된 차종으로는 승객의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므로 승합택시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조합 박상익 이사장은 개인택시는 차량의 고급화, 차량관리 철저, 운행

거리 감소 등으로 차량제도가 불필요함에도 차량을 규제하고있어 영업환경이 악화되므로 개인택시 차량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충남조합 김해경 이사장은 택시호출 서비스 수수료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박수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하여 줄 것 것과 차량 일제점검제도를 시·도조합에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조합 조창영 이사장은 10년전의

경미한 사고에도 재취업 시 운전정밀특별검사 대상자가 되어 개인택시 사업자는 사업자·운전자에 해당되어 각각 180만원과 50만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333콜 서비스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한 답변으로 박지홍 신고통개발과장은 충남조합 김해경 이사장이 건의한 「택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해 줄 것 것과 관련,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이송되어 있으니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운전정밀특별검사제도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적극검토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유인 택시산업 팀장은 택시업계를 위해 성심껏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조합 이사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병윤 종합정책조정관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오늘 같은 유익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4000만원 + 0% +
 최고한도 4,000만원 최저금리 연 5.9%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부터(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사심의필 제150708-101043호(2015. 07. 09)

취임사

사업영역 다변화로 고급화 된 택시환경 만들터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취임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32주년 조합창립행사와 함께하는 저의 취임식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주시는 많은 내외빈 여러분과 조합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은 메르스로 인하여 상권이 붕괴되고 따라서 거리에 택시손님도 현격히 줄어 참으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2년의 인천개인택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가용 자동차의 확대, 인천지하철 개통, 대중교통인 버스 공영화, 환승무료 등으로 택시손님이 줄어 세월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택시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고 또한 택시구입비인상과 차량의 고급화로 인한 수리비인상 등으로 우리 개인택시의 삶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스러운 택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1.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진로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공항

콜택시, 관공서 업무협약콜택시, 등 가맹점사업으로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택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시청과 구청의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버스와 마을버스의 활성화로 택시업계의 침체 원인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실패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급하게 현실과 동떨어진 감차계획을 발표하여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은 늦었지만 택시승강장확대와 더불어 각종규제의 완화를 해야 합니다.

3. 조합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9천 조합원이 사용하는 조합정관은 2004년 개정이 후 현재까지 단 1차례 수정 없이 21년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조합원님들 각자에 맞게 해석되다보니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 조합원님들이 납부한 귀한 조합비가 소송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합 정관을 꼭 수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취임을 하고 9천조합원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려니 어깨가 무겁습니

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발로 뛰고 노력할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조합창립행사와 함께하는 제 취임식에 참석하여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제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채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0%의 연체이자율 적용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수,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카드 오토 포인트 +BLU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U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50623-150119호 (2015.07.01)

박수현 의원 발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지자체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가능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법안들이 수도룩한 것에 비하면 「택시발전법」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 통과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수현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택시 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한 택시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중단되면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콜센터가 꼭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지자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5월 11일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어서오세요”...승객에게 두번 인사 중랑지부-중랑구청과 친절 협약 맺고 실천다짐



▲ 지난 6월 5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중랑지부(오른쪽 두번째 이인성 지부장)와 중랑구청(나진구 구청장)이 친절택시 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랑지부 이인성 지부장과 나진구 중랑구청장이 중랑친절택시 협약서에 서명날인했다.

이번행사에 이인성 지부장은 “중랑구의 발전과 개인택시 발전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고 이에 나진구 구청장은 “어서오세요”라는 인사말 한 마디

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남궁용선 부지부장은 개인택시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업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지부에서는 금번 협약식을 통해 구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각종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신문은 16만 개인택시사업자의 신문입니다.
등산, 조기축구 등 동아리 모임이나 봉사모임 단체의 기사제보를 받습니다.

기사제보 | ☎ 010-8759-4181

국토교통부, 개인·법인 택시업계 실무자 간담회 가져

국토교통부와 택시 양대 연합회는 7월 10일 개인택시연합회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 권병윤)와 우리 연합회간 간담회 개최 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택시 산업팀 고성우 사무관, 이경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 이진구 자격관리처장, 장찬욱 부장, 이재용 차장이 참석하고 교통단체에서는 개인택시연합회 김도길 차장, 법인택시연합회 박유오 과장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 관할 관청에서 면허발급전 수검대



▲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와 택시 양대 연합회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상자를 조회하여 미수검자는 수검후 면허 발급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원

천 해결 하여 줄것과

- 장기 미수검자는 5년 이상자는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수검대상자 통지전 조합 및 개인에게 우선 통지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건의에 국토부 및 공단은

- 국토부는 업계의견을 최대한 수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하달 하겠으며, 제척기간은 추후 더 논의하겠다고 하였으며,

공단은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조치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랜기간 민원의 대상이었던 “운전적성정밀검사”제도가 개선되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 될것으로 기대된다.



Interview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시 중원구) 인터뷰

◆ 다시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동안 정치를 떠나 야인으로 계셨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임기가 그리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 2012년 선거에서 낙선하고 3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만큼 4년간의 국회의원 임기를 1년으로 압축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낙후된 성남 중원구와 같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입법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정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최고 학부의 의사로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고,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민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일련의 정치활동과 사회활동을 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저는 서울 공덕동에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이후 가난한 고학생으로 생활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노동문제에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1982년 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과의 인연은 1984년 상대원 공단에 노동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남공단의 (주)동양특수기공에서 노동자로 취업체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두 딸을 낳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모란시장 참기름 장사에

나서기도 했고, 대학 입학 1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중원구에서 동네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를 비롯해, IMF 당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무상으로 진료해 드리거나 외상으로 진료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의사협회 회장이 되어 당시 의약분업 당시 대정부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활동을 지켜보던 당시 한나라당에서 추천을 해서 2004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 의원님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개인택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16만 4천 개인사업자는 가뭄 끝에 단비를 맞는 심정으로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및 회생과 관련한 비책이 있으신지요.

- 현재 가파른 물가상승과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 대리운전의 성행,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증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의 택시 요금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29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서 개인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법안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면제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객이 탑승했을 시 택시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입



법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택시를 위한 법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열심히 근로하시는 운송업 종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16만 4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치솟는 물가에 비해 승객들은 줄고, 택시비는 오르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자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서민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앞장서서 택시기사님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률로서 바로잡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택시 기사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TS 교통안전공단

명목만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재정·공유·소통·협력]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자동차
그러나 보행자 사고 OECD 1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Interview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장안구)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시 장안구)은 택시업계에 관한 자타공인 전문가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르기 까지 교통현안문제 해결에는 늘 의원이 앞장서 왔다. 우리 택시업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몇 안되는 의원 중의 한분이다.

국회의원회관 833호는 소통의 열린 공간이다.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인 교통단체 실무자들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가도 그 해맑은 미소로 반겨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이웃집 아저씨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깔깔 웃으며 맞이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본지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들어갔다.

◆ 지난 하반기 국회에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기시자마자 우버택시 등 불법택시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불법택시 논란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불법택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5. 6. 22. 공포되었습니다. 택시업계의 골칫거리였던 불법운송행위가 상당부분 해소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업계종사자는 대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난해 6월 30일 불법택시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트 차량이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불법택시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 등을 이용한 불법택시영업행위는 도심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술집이용 고객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도시외곽

지역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업체 간판을 걸어놓고 대리운전과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병행하고 있어 문제개선이 시급한 실정 이기에 불법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말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발의하신걸로 아는데.

- 지난 2003~2014년까지 12년간 전국 총 73곳 택시업체(2755대)가 폐업했고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6곳(139대)이 폐업했다.

경영 악화에 따라 파산 또는 인수·합병되거나 법정기준 충족 미달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택시운수사업은 다른 대중교통 성장과 반대로 종전의 택시가 하던 역할은 감소되어 가고 택시이용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 과잉된 택시 수와 택시이용수요의 감소는 택시운사업체의 경영에 적신호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대책 없이 강한 규제 등을 우선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택시운수업체는 유가인상 등 영업원가 상승과 제자리걸음인 택시요금으로 이윤 추구에 차질이 생겨도 이를 해결할 방안을 현재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국회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교통약자와 택시 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대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6건이나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애환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 택시운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



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제 19대 국회도 1년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 저는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경기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더 큰 정치, 더 역동적인 의정활동 펼쳐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의정활동간 우리 수원 장안구의 숙원사업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 70억원을 확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또한 낡고 좁은 성균관대역을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수원에서 KTX가 출발하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으며, 120만 인구에 적합한 새로운 자치제도를 마련해 수원시의 승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원과 경기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더 큰 정치, 더 역동적인 의정활동 펼쳐나가 장안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오만과 독선의 정부를 국민과 함께 견제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유병우 회장,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과 회동

체험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개정 등 논의

지난 6월25일 우리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연석 회동을 갖고 체험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택시업계 애로 사항등을 논의했다.

이날 연합회를 방문한 오 이사장은 “공단과 택시업계가 장기간 소원한 관계였다”고 말하고 향후에는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해나가자고 제의했다.

유병우 회장은 “택시업계가 각종 점검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처벌 위주의 법령이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주문했다.

또한 3단체장은 업계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만나 업계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단의 본연 업무로 충실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합의했다.



대구조합을 가다

“LPG, 타이어 배터리, 윤활유, 자동차 차량정비 수리 등 택시 1대가 한달에 구매하는 금액을 줄잡아 100만원씩 계산해도 조합택시 1만대가 구매하는 지출 금액이 1백억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이야말로 조합의 엄청난 생산 자원입니다.

그런데도 조합이 조합원들의 구매력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조합도 조합원도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조합원이 단결하면 폭발적인 조합 발전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이사장실에서 만난 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대구조합 김순락 이사장

조합 소유 충전소 착공, 1만조합원 숙원 해결

충전·세차·정비 휴게실 갖춰… 편의성 제고

김 이사장, 반대하는 조합원 긴 호흡으로 설득·화합 이룰 터

순락 대구 조합 이사장은 조합원이 단결만 하면 조합원들의 이윤이 보이는데 수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연거푸 말할 때 마다 김이사장의 표정은 상기된다.

◆ 조합 소유 충전소 착공

대구 조합은 현재 4개소의 충전소를 임대하여 복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체 충전소 확보보다는 임대 충전소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충전소는 막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제 10대 이사장 선거 때 조합 사옥 신축과 함께 조합소유 충전소를 만들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김 이사장은 실천을 위해 고민했다.

취임 후 2년동안 대구 시내를 샅샅이 누비면서 조합 사옥 신축 부지와 충전소 부지를 찾았다.

지성이며 감천이었다. 2014년 3월 검단동에 있는 5300평에 충전소 허가가 나있고 가격이나 조합원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땅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다.

김 이사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답사 후 적격결정을 내리고 이사회에 상정했다.

초지 상태인 북구 검단동 조합 사옥 및 충전소 후보지는 땅값도 저렴하여 적격이었다. 충전소 허가가 나있는 땅 1086평은 평당 340만원, 허가가 나있지 않은 조합 사옥 후보지는 평당 100만원에 구입을 추

진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너무 많은 땅을 산다고 반대하여 조합 사옥 후보지는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충전소 후보지 1086평만 허가를 포함 평당 378만원으로 결정하고 41억원에 매입 계약을 마쳤다.

김 이사장은 충전소 부지 매입을 하면서 투명하고 법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계약에 참여시키고 추진위원 4명과 조합 감사까지 계약 추진 과정에 입회시켰다.

또한 공사비 조달에 조합의 힘을 덜기 위해 LPG 공급사인 E1로부터 4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조합은 12억원만 투자하는 수완도 발휘했다.

충전소 건축과정에 조합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의 결의 과정도 거쳤다.

“조합충전소는 LPG 충전은 물론이고 세차, 정비, 휴게실 등 조합원 편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해 명실공히 조합원을 위한 복지충전소로 건축할 겁니다.”

후보지 물색, 반대 조합원 설득 등 힘든 과정을 이겨낸 김 이사장은 이렇게 조합의 청사진을 밝힌다.

현재 4개 임대 충전소를 운영하는 대구조합은 지난해 동안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합원에게는 충전량의 10에 62원을 매월 환원해주고 배당금도 지급 조합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복지충전소 이용률도 80%에 달할 정도로 높혔다. 검단 충전소를 지난 6월에 착공한 김 이사장은 충전소 주건물과 부대시설을 오는 10월까지 완공, LPG 충전은 물론 차량 정비, 세차, 휴게실 등

편의 시설을 조합원에게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임대 운영하는 복지 충전소의 임대료는 엄청납니다. 편의시설도 변변치 않은 복현충전소 월세가 2500만원으로 1년이면 3억원을 임대료로 지출합니다. 조합원의 혜택을 늘리려면 조합충전소를 늘려야 합니다.” 김 이사장이 조합충전소 건설에 올인하는 이유다.

◆ 반대 조합원 긴 호흡으로 설득할 터

“1만명이 넘는 우리 조합원이 하나로 단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경영에서 반대는 항상 존재하는 책책입니다. 그렇다고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긴 호흡으로 인내하면서 반대하는 조합원을 설득할 겁니다.”

반대 조합원에 시달려온 김 이사장의 리더십은 확고하다.

충전소를 임대하여 복지 충전소 경영을 일관한 대구조합에 조합 소유 충전소 건축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김 이사장은 검단 충전소 건축공사를 시작한 뒤 반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크쇼를 가졌다.

‘이사장과 조합원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일시와 장소를 예고해놓고 6월 24일~25일까지 이틀동안 하루에 2시간씩 조합원들과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조합원이 질문하고 이사장이 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은 오해를 해소시킨 생산적인 토론이었다.

| 대구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부이사장 정태옥



감사 최영기



감사 오종하



이사 김병관



이사 홍국선



이사 손병용



이사 박병찬



이사 전영한



이사 박노영



이사 하영출



이사 정병기



이사 이상호



이사 장원정



남.달서 지부장 정창기



동.수성 지부장 하재복



북.서.중 지부장 김영석



대의원 구본태



대의원 김근식



대의원 이성호



대의원 홍덕승



대의원 이근영



대의원 공철규



대의원 전병섭



대의원 윤종근



대의원 이재욱



대의원 이민구



대의원 유연자



대의원 김성철



대의원 고재명



대의원 양문순



대의원 성윤경



대의원 서성진



대의원 성가영



대의원 김성천



대의원 허중훈



대의원 박경수



대의원 이원동



대의원 권오현



대의원 김용도



대의원 이동숙



대의원 김용해



대의원 송취준



대의원 문영찬



대의원 서장하



대의원 김수철



대의원 신남식



대의원 이경숙



대의원 최광식



대의원 정인수



대의원 김유식

◆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 벌여

전국 각지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속에 놓고 내리는 분실물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분실물을 찾지 못하

는 승객들의 택시 운전사에 대한 불신은 대단하다.

김 이사장은 택시에 놓고 내리는 분실물을 승객에게 신속하게 찾아주기 위해 조합에 분실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 실적이

부진하지만 조합원이 적극협조하여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분실물 찾아주기 운동이 정착되면 개인 택시에 대한 신뢰도가 두터워질 것으로 김 이사장은 확신한다. (글·사진 김관술)



경남조합을 가다

“마산시와 진해시가 창원시에 통합되어 경남도가 8개시 10개군으로 행정조직이 짜여있지만 도 조합은 통합 전처럼 10개시 지부와 10개군 지부로 구성되었고 조합원 숫자가 8118명이나 되는 큰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합천군 지부 조합원 수가 86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지부지만 18년 동안을 지부 경영을 하면서 도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받쳐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경남 조합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6월 30일 기자와 만난 이호충 이사장은 전임 이사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경남조합 이호충 이사장

시·군지부 역량강화로 조합원 복지사업 활발 충전소 6개소 직영·행복택시·통학택시로 추진 이 이사장, 천천히 꼼꼼하게 조합 운영에 헌신할 터

장들이 쌓아온 업적위에 자신의 역량을 덧붙이겠다고 말한다.

“특히 20개시·군지부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업무추진이 도 조합은 도 단위 행정기관을 상대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연합회의 일원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하고 시·군 지부는 해당 시청과 군청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업무를 추진하는 2원적 구조여서 도조합과 시·군지부가 밀어주고 당기는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고 밝힌다.

◆ 운송여건 개선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개인택시 8118대, 법인택시 5054대 등 1만3천172대다.

전국 16개 시·도조합 중 조합원수 6위인 경남조합은 다른 시·도조합과 마찬가지로 택시 공급이 크게 과잉돼 운송여건이 어렵다.

경남도가 세 차례에 걸쳐 택시 총량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차 댓수가 3931대나 된다.

경남조합은 택시의 공급과잉으로 운송여건이 열악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택시의 운송여건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오고있다.

현금 위주의 택시 요금 지불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택시 8118대 중 7739대에 카드 결제기를 장착했다.

도 조합은 카드결제기를 장착하면서 경남도청으로부터 카드 결제기 지원금을 받아냈고 시·군 지부도 해당 시·군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 조합원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2012년부터 카드 결제 수수료를 도비 지원 50% 시·군비 지원 50%를 받아 전액지원을 받고 있다.

도 조합과 시·군지부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계속 받기위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남조합은 2010년부터 도비 지원과 시·군비 지원을 받아 영상기록장치와 네비게이션 장치를 시작 2012년까지 전 조합원 차량에 장착을 끝냈다.

영상기록장치와 네비게이션이 장착이 완료되고 난 후 교통사고율이 감소되고 운전의 편의가 증대되어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 운송수입 향상에 총력

도 조합은 도시와 농촌지역 조합원의 운송수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행복 택시 운행과 등·하교 택시 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0개시지부와 10개군지부로 구성돼있는 경남조합은 택시 운행 댓수는 10개군지부에 81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댓수가 10개군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승객이 적어 운송수입이 형편없습니다. 일부 농촌지역 지부에서는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오지 주민들에게 행복택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식 부족으로 운행 댓수가 적거나 아예 운행을 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도 조합은 농촌지역 지부를 독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노선이나 스쿨버스 운행이 어려운 산간벽지나 농·어촌 학교를 발굴해 ‘학교-개인택시’, ‘교육

청-개인택시’의 운행계약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고 이호충 이사장은 밝힌다.

또한 경남조합은 시지부에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지부는 시비 3억원을 지원 받아 자부담금 1억5천만원으로 영골을 만들어 610대가 가입 콜을 받아 운행, 운송수입을 높이고 있다.

또한 1차로 시비 1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우리콜을 만들어 803대 발족시키고 2차는 대당 15만원씩 지원 받아 265대에 콜시설을 장착 브랜드 택시를 운영 운송수입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이 밖에도 거제시지가 시비 6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조은섬 거제콜’을 발족, 432대 조합택시 중 406대가 콜에 가입 운행하고 있다.

통영시 지부도 시로부터 4억6750만원을 지원받아 ‘한려수도콜’을 만들어 385대 조합택시 중 275대가 콜을 받아 브랜드택시로 운행하고 있다.

김해시지부도 4억원을 시비로 지비 받아 ‘가야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1110대 조합택시 중 400대가 콜택시로 운행한다.

양산시 지부는 456명의 조합원 중 350명을 지원받아 대당 100만원씩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뉴양산콜’을 만들어 콜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경남 도내 8개시 중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등 5개시에서 브랜드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콜택시는 교통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운전자 실명제,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콜택시 문화를 확대해 나가면서 상당한 운송수입 증대를 얻고 있다.

◆ 복지 충전소 운영

경남조합은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김해 시 지부등 5개 지부에서 6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전소 불모지 경남조합에 15년전 진주시지부가 직영 충전소를 만들어 스타트를 끊었다.

진주시 지부의 충전소 운영이 성공하자 2002년 창원시 지부가 가세하면서 복지 충전소 사업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20개 지부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마산시 지부도 2008년에 충전소 경영에 참여하여 현재 2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 제1충전소 운영을 시작한 마산지부는 첫 해에 연매출 107억원을 올렸다.

조합원이 2천여명인 마산지부는 2008년에 시작한 제1충전소가 첫 해 매출이 107억을 달성 호조를 보이자 제2충전소까지 늘렸다.

진주, 창원, 마산지부의 충전소 성공사례는 통영, 김해시 지부로 파급되어 김해, 통영시도 충전시 풀사인이 꽃혀 경남조합에는 6개소로 충전소가 늘었다.

이와 같이 조합원 복지꽃으로 불리는 LPG충전소가 5개시지부에서 6개소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시·군지부의 업무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 역동적인 공제업무 실현

8개시 10개군의 광활한 면적에 8118명의 조합원의 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제조합 경남지부는 25명의 공제 직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총무팀과 보상팀으로 짜여진 경남지부는 사고처리와 보상업무 담당직원을 진주시지부에 4명, 통영지부에 2명, 김해지부에 5명씩을 상주하도록 전진 배치해놓고 사고 장소와의 접근성을 좁혀놓고 발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는 초등사고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동성있는 짜임새는 사고처리와 보상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예방 노력과 공제직원들의 사고처리 능력 향상이 결합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사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공제직원의 역동적인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이호중 이사장은 도조합에 근무하는 본부 인원과 3개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사진 김관술〉

| 경남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창원지부 김연정



창원지부 윤병두



창원지부 전성수



마산지부 윤낙규



마산지부 박지순



마산지부 박정석



마산지부 이재식



마산지부 강철수



진해지부 전전환



진주시 최정철



진주시 이성우



진주시 이석만



통영시 김정곤



사천시 이강우



김해시 이병국



김해시 김두식



김해시 조용구



밀양시 김문수



거제시 최종기



양산시 박우호



의령군 송복언



함안군 황근철



창녕군 채용해



고성군 김형대



남해군 정기진



하동군 우정실



산청군 고재진



함양군 최석현



거창군 이상두



합천군 이홍인



2015년 2/4분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허용 등)

국회에 제출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허용 관련 법률안 3건('13. 2. 14. 함진규의원 등 10인, '13. 5. 6. 이장우의원 등 17인, '13. 6. 25. 박완주의원 등 10인)의 법률안,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 1건('14. 6. 30. 이찬열의원 등 10), 렌터카와 우버의 불법여객 운송행위 근절 관련 법률안 3건('14. 10. 13. 이노근의원 등 10인, '14. 10. 27. 한정애의원 등 11인, '14. 10. 28. 김성태의원 등 11인)의 법률안을 통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 4. 28) 및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15. 5. 29)를 각각 통과하여 공포('15. 6. 22)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주요내용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
○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2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총량 기준을 마련하여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총량 산정을 위하여 도농복합지역은 총량 산정 시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나 면적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1:1의 비율로 합산하도록 하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438호 '15. 07. 01) 하였으며,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
<p>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p> <p>가. 산정공식</p> <p>○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80%)과 시간실차율(20%)을 반영</p> <p>· 택시총량 = 현재면허대수 × $\left(\frac{\text{현재거리실차율}}{\text{목표거리실차율}} \times 0.8 + \frac{\text{현재시간실차율}}{\text{목표시간실차율}} \times 0.2 \right) \times \text{현재가동률}$</p> <p>(단서 신설)</p>	<p>3. 사업구역별 총량 산정방식</p> <p>가. 산정공식 (현행과 같음)</p> <p>※ 다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아래와 같이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① 인구 비율에 따라 각각 총량 산정</p> <p>* 도시(농촌)면허대수 = 총면허대수 × $\frac{\text{동(읍면)인구}}{\text{전체인구}}$</p> <p>* 도시와 농촌의 목표실차율 적용</p> <p>② 면적 비율에 따라 총량 산정</p> <p>* 도시(농촌)면허대수 = 총면허대수 × $\frac{\text{동(읍면)면적}}{\text{전체면적}}$</p> <p>* 도시와 농촌의 목표실차율 적용</p> <p>③ 전체 총량 산정 = ① + ② × $\frac{1}{2}$</p> </div>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행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2인) (2015. 06. 16)	⇒	○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12인) (2015. 05. 08)	⇒	<p>○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알선 용도에 따라 알선 기간을 제한하도록 함</p> <p>○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제3항이 정한 운전자의 범죄경력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음</p> <p>○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알선한 운전자의 명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함</p> <p>○ 본 개정법률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p>
---------------------------------------	---	---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콜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연합회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박수현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한 결과, 박수현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동 법률안은 제334회 국회(임시회)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 06. 17) 및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5. 06. 18)를 각각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15. 07. 15)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10인) (2015. 05. 11)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 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자율감차 전국 확대 시행('15.7월)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

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안 제17조) 할 수 있도록 감차기간을 완화하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15. 05. 18) 하였으며, 신·구조문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 ----- 다만,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할 수 있다.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
(고급택시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불법우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급택시 수요에 대응하여, 택시 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을 경감하여 행정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입법예고('15. 04. 09)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주요내용
<p>▷ 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 요금신고제 도입</p> <p>현행 택시 요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있어,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을 차등화 할 수 없어 사업자의 고급택시 도입을 저해하므로 고급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음</p>
<p>▷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완화</p> <p>택시 부제, 청결, 복장 준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승차거부 등 타 불법행위 위반 시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과징금을 완화할 필요</p>

연합회는 택시의 경쟁력 제고와 택시수요 확대를 위해 고급택시 도입 방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택시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정	추진사항
'15.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택시 활성화 방안마련 회의 - 국토부 택시산업팀, 택시업계(연합회 및 서울조합)
0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국토부 택시산업팀, 서울시, (사)한국관광호텔협회, 택시업계(연합회 및 서울조합)
0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택시 활성화 방안마련 회의 - 국토부 택시산업팀, 한국MICE협회, 택시업계(연합회 및 서울조합)
0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국토부 택시산업팀, 한국MICE협회 택시업계(연합회 및 서울조합)

0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택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관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주최 : 국회의원 김성태 - 사회 : 김성태의원 보좌관 - 발제 : 서울연구원 안기정 연구위원 -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교통부 박지홍 신교통개발과장 서울특별시 양완수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오광원 이사장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한국MICE협회 장동원 본부장
-------	---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승합택시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해 고급택시에 대하여 택시 내·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의무를 면제하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며,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기술발전 등에 따른 정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택시 구분기준에 “크기와 승차인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15. 04. 09)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주요내용
<p>▷ 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 개선</p> <p>택시운송사업의 종류구분 기준에 현행 ‘배기량과 승차인원’ 외에 ‘크기와 승차인원’ 기준 추가하고 고급택시 구분기준을 배기량 2,800cc 이상으로 완화</p>
<p>▷ 외부 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 제외</p> <p>‘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고급택시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제외</p>
<p>▷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 확대</p> <p>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p>
<p>▷ 고급택시의 미터기 설치, 표시등 장착 의무 등 면제</p> <p>고급택시는 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카드결제기,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하고,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를 면제</p>

당연합회와 전국택시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5. 04. 09) 내용 중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택시 차종의 다양화로 서비스 개선이 승객들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으나, 최근 버스업계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에서 “승합택시 도입”에 대하여 국회, 정부 등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부의 택시정책을 저지하는 데 국회 활동에 대응하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강석호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의원 등에 승합택시 도입을 건의('15. 05. 20)하였다.

16만 개인택시 조합원... 철통같은 메르스 방역 실시

메르스 방역, "택시안, 착한 방역 서비스"... 환자 발생 제로에 성공

중동발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고 있을때 전국개인택시는 철저한 예방으로 택시 승차로 인한 메르스 환자를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되게 했다.

메르스 공포가 가장 심했던 서울에서는 서울조합이 5만대의 택시에 직접 소독제를 전 차량에 보급, 조합원들이 수시로 직접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역 승차대, 양천구 복지충전소, 공릉동 복지충전소에 특별방역장소도 지정하고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차내 소독은 물론 조합원들의 손과 옷까지 소독했다.

부산조합도 6월 8일부터 11일

까지 소독제를 구입, 방역을 실시했다.

부산조합은 시내 교통 요충지와 충전소 7개소에서 차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방역 활동을 하였다.

또한 부산역, 김해공항, 노포동터미널 서면 교차로 등 4개소에 개인택시 검역반을 운행했다.

손세정제 1만4천여개를 시로부터 공급받아 전 조합원에 나누어주고 철저히 소독을 하도록 했다.

광주조합은 조합 전 차량을 메르스 방역 소독을 하고 조합 충전소 검역소를 설치 운영했다.

특히 김문옥 이사장은 직접 방역복을 입고 조합임원들과 함께 차량 살

균 소독을 비롯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전남조합도 시 단위 지부를 중심으로 메르스 방역을 위해 노력했다. 시 단위 지부에서는 소독약을 택시에 비치하고 승객이 손을 세척하고 또한 지부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차량 소독도 병행했다.

이 밖에 대전, 울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 조합에서도 차량 방역은 물론이고 조합원 스스로도 방역에 참가해 전국개인택시에서는 단 한명의 메르스 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시민들도 믿음직한 개인택시 방역활동을 보고 과연 개인택시라는 찬사를 보냈다.



차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SM5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New SM5 Platinum 탄생

- ▶ 감각적인 럭셔리 스타일로 품격이 업그레이드됩니다
- ▶ 스마트 ECO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친환경 드라이브가 가능해집니다
- ▶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숨은 위험까지 알려줍니다
- ▶ 프리미엄 나파시트로 실내가 더 특별해집니다
- ▶ Smart Connect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간편해집니다
- ▶ BOSE®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감동을 전합니다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New SM5 2.0 CVT II 엔진 : 배기량 1988cc, 공시중량 1459kg, 무단변속기, 연비 14.1km/l, CO 배출량 166g/km, 2등급 - New SM5 2.0 CVT III LPL* 엔진 : 배기량 1988cc, 공시중량 1470kg, 무단변속기, 연비 10.0km/l, CO 배출량 176g/km,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방센터 (080-300-3000/02-300-3000)이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NEW SM5 Platinum

교통사고 20% 감소 목표에 도전한다

경기조합 공제지부... 양곡 와이드미러 전 조합원에 무상장착

경기도 조합과 공제조합 경기지부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여 일반자동차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 추세인데 개인택시나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제조합의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조합원들의 공제분담금(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판단한 도 조합과 경기지부가 합동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창영 경기조합 이사장은 “일반차량의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는데 택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과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 경각심을 깨워주는 한편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차량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부는 도내 시·군 조합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과주 ▲구리 ▲하남 ▲의왕 ▲과천 ▲남양주 등 6개 시·군 조합을 선정하여 1200여대를 주간 전조등 자동점등 장치 장착을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끝내고 사고 감소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도 조합과 공제 경기지부는 사고 감소추세가 확인되면 전 조합원 차량에 주간 전조등 자동 점등장치를 확대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출고 차량에 부착된 사이드미러보다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하여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를 줄여 사고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되는 ‘양곡 와이드미러’를 6월 18일까지 전 조합원에 부착완료했다.

1972년부터 핀란드는 주간점등 켜기를 실시 교통사고 21%를 감소시켰고 정면충돌은 28% 감소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고 노르웨이, 캐나다 등에서는 주간점등 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간점등 효과는 국토부, 도로공사등에서 입증하고 있다.



주간전조등 켜기의 효과 (국외)

국가	도입	장착 효과
핀란드	1972년	○ 교통사고 21% 감소, 정면충돌 28% 감소
스웨덴	1977년	○ 교통사고 11% 감소, 정면충돌 10% 감소
노르웨이	1985년	○ 주간전조등 의무화 후 교통사고 15% 감소
캐나다	1989년	○ 주간전조등 장착 의무화('90년) 교통사고 12% 감소
미국	2011년	○ 운전자 주의력 2배 향상, 차종별 5 ~44% 감소
일본	2015년	○ 나가노현 1만대 점등 운행 사고 30% 감소

* 주간 점등 도입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미국, 일본) 권장(호주, 영국) 등
* 자료 :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보고서(주간주행등 분야), 자동차 성능 연구소('08. 7)

또한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1일부터 생산되는 자동차는 주간 주행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출고 할 예정이다.
경기조합은 전국 개인택시 사고가 20% 감소하면 연간 약 240억원, 인명 피해 9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20%로 잡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글·김관술)



어르신 안전하십니까?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www.klpg.or.kr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2015 개인택시공제조합 대인보상 실무교육과정

자동차보험 및 공제의 보상항목은 크게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인보상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람에 대하여 보험 및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로 보험금 및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대물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차량 등의 물적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보상직원 교육 또한 크게 대인보상 부문과 대물보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는 대인보상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공제조합이 실시하는 대인보상교육 과정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공제조합 지부에서 대인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21명의 직원들이 모여 실시된 이번 교육은 우리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준비·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인배상관련법규와 실무 사례 분석 및 적용 등으로 구성된 대인배상실무 강의를 중심으로 대인보상 담당 직원들의 기초역량 강화를 목표로 핵심이론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인보상 직원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의료분과인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부문의 기초의학 이론 강의와 사고조사기법, 과실적용 처리요령, 구상소송제기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소송실무 강의가 함께 진행되어 대인보상 부문 전반에 걸친 기초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으로써 부족함이 없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대고객만족서비스 교육인 CS강의가 별도로 마련되어 조합원 및 피해자 등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일면도 엿볼 수 있었다.

대인보상실무과정이 공제조합 교육과정의 시발점이 되는 교육이기에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조합에 임용된 지 2, 3년 차 정도되는 새내기 직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 일정 내내 그들의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이 모르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강사 또는 동료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며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3일의 교육일정 내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교육일정이 시작되는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강의실에 나와 전날 배운 것을 복습하는 교육생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이러한 젊은 공제조합 직원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공제조합을 이끌어가는 튼튼한 밑바탕이 될 것임을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마지막날에는 3일간 진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평가가 진행되었다. 공제조합은 조합이 실시하는 대부분의 교육과정의 마지막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교육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에 참가한 21명 전원이 평가에 합격하여 과정을 수료했다.

대인보상교육은 앞서 말했듯 공제조합 교육의 시작이다. 대인보상실무를 수료한 직원들은 이제 세부 심화과정인 의료연수 교육, 구상·소송 실무 교육 등 더욱 수준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상 업무의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하나, 둘씩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2015년도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공제조합의 교육과정에 함께하며 직원들이 보여줬던 열정과 패기가 한해의 끝까지 이어져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취재를 마무리 했다.

공제조합 경영종합분석회의(부지부장회의) 개최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회장 유병우)는 지난 4월 27일(월) 11시부터 공제조합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공제운영현황 및 손해율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4년도 경영종합분석 회의(부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장을 비롯한 16개 지부 부지부장들과 본부 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장의 훈시와 14년 주요 경영실적 보고 및 지부별 발표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 후 본부 각실별 중요 강조사항 및 전달사항이 이어져 회의는 오후 5시가 되어야 종료됐다.

작년 경영실적 등을 고려한 지부별 발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울산, 제주, 경북부지부장의 순서로 공제계약 현황, 손해율 현황, 사업비 절감방안, 추산관리, 미결감소 방안, 간접손해 절감 방안, 입원환자 감소 방안, 수입차량 관리 강화, 피소율 감소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제경영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부별 공제특성에 따라 조합원, 피해자, 직원이 만족하는 공제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에는 공제경영의 안정화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율 **1%** 줄이기

1. 전좌석 안전띠 매기
2.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DMB 사용 안하기
3. 생활도로 서행운전 좌·우 확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동호회 탐방

서울 중랑지구 천마축구회

2002년 월드컵 축구 열기로 늦깎이 창단 서울조합 공인축구대회 3년 연속우승한 스타 군단



서울조합 가·나·다조에 소속한 1백여개 조기 축구회중에서 창단이 오래되지 않은 중랑지구 가조 천마축구회가 일약 스타군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화제다.

천마축구회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2002년에 창단되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대회에서 4강 신화를 달성하자 축구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을때 15명의 가조 조합원이 모여 축구 동아리를 만들었다.

서울 조합원이기는 하지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많아 '남양주 축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단한 천마축구회는 '신남양주 축구회'라고 개명했다가 2011년 남양주라는 지명을 떼어버리고 천마축구회로 탄생한다. 하지만 천마축구회는 서울 변방에 있는 축구 동아리로 냉대를 받으면서 가조 연합회조차 가입을 하지 못했다.

천마축구회는 기존 팀들의 반대와 비협조적인 환경속에서도 F.C컵대회를 비롯,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여세를 몰아 가조 연합회 가입을 했다.

◆ 스타팀으로 탄생

15명으로 출범한 천마축구회는 2011년 40명으로 회원이 늘어나면서 전성기를 맞는다.

가조연합회에 가입한 천마축구회는 2011년 가

조 연합회 봄대회와 가을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또한 이듬해 시행한 봄 대회, 가을대회에서 우승 서울조합 스타로 부상한다.

2013년에는 서울조합 가·나·다조 1백여개가 넘는 팀들 중에서 선발돼 치뤄진 왕중왕전에서도 우승 명실공이 서울조합 내 최강팀으로 위치를 굳혔다.

천마축구회가 서울조합 내 최강팀으로 태어나기까지는 역대 회장들의 헌신적인 리더쉽과 감독을 비롯한 코치의 기량훈련 강화가 성공요인이었다.

지금도 서울시내 전용구장을 구하지 못해 구리시 소재 사노리 축구장을 1시간당 2만원씩을 주고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독특한 훈련방법이 우승의 비결이다.

천마축구회는 하루에 2개팀으로 나누어 30분씩 3게임을 한다. 게임전 30분을 스트레칭은 기본이고 개인별로 축구 기본기 연습을 통해 개인기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취미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이지만 운동에 대한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 축구 룰을 정확히 알면 즐겁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높아지지요. 또한 개인기 연습을 통해 회원들의 기량이 발전되면 팀워크가 잘 이뤄집니다.”

중학교때부터 선수생활을 한 박상철 감독은 우승 비결을 철저한 개인기 연습에서 찾고있다. 회원

들의 개인기가 탄탄한 천마축구회는 올해도 4월 20일 가조 연합대회 우승한 데 이어 5월1일 F.C컵 우승하여 5월30일 현재 서울조합 공인 축구대회를 석권 최강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 돈독한 단합

월회비로 2만원씩 거출하여 운영하는 천마축구회는 한달에 한번씩 월례회를 갖고 회원간의 친목을 다진다.

“40여명의 회원들의 유난스런 팀 사랑은 대회때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또한 건강한 체력 단련을 통해 힘든 운전 직업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고 이종찬 회장은 말한다.

40대 초반부터 70대 중반까지의 나이로 짜여진 천마축구회 회원들은 이제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량 훈련을 하면서 건강한 체력을 만들고 있다.

천마 축구회의 또 다른 특징은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채택, 회장은 짧은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역동적인 동아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종찬 ▲부회장 김용술 ▲감독 박상철 ▲코치 김상훈 ▲총무 유광식(☎010-7232-4917)

〈글·양소진 기자〉

꼭 알아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



여름 특유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피로감, 무기력증, 감기 등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증상들이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더위로 인한 체력적 손실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름철 건강관리법 소개한다.

◆ 영양 갖춘 삼시세끼 챙겨먹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여름. 운동해서 흘리는 땀과 다르게 더위로 인한 땀은 몸에 필요한 무기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기력이 약

해지게 된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섭취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체온을 낮춰주면서 무기질과 수분이 풍부한 여름채소로는 오이, 상추, 시금치, 가지 등이 있으며,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과일인 수박, 참외도 자주 섭취해주면 신진대사 활성화 및 면역력 증강,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 음료수 대신 미지근한 물 마시기

여름철엔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음료수나 물을 자주 찾게 된다. 하지만 음료수의 과한 당분이 비만이나 충치를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더한 갈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료수 보다는 물을, 차가운 물 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 체내에 수분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자신의 키(cm)와 몸무게(kg)를 더해 100으로 나눈 값이다.



◆ 하루 30분 규칙적인 운동하기

덥다고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해롭다.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햇볕이 가장 강한 낮 12시와 1시 사이에는 야외운동을 자제해야 하는데, 땀을 과하게 흘리면 탈수현상 및 급격한 체력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바람이 잘 통하고 넓은 운동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열을 서서히 식히고 땀으로 빠져나간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해 수분과 단백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손 청결 유지로 질병 예방하기

땀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세균이 서식하기가 쉬워, 위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이동하는데다 손을 씻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세균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되도록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나 손세정제를 이용해 거품을 충분히 내고 최소 30초 이상 고루 문지른 뒤 흐르는 물에 헹궈야 한다.

손만 잘 씻어도 호흡기, 피부, 안구 감염이나 설사성질환의 감염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하기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청결유지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정성과 기능을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타민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이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홍삼, 인삼, 클로렐라, 당귀혼합추출물, 효모베타글루칸 등은 면역기능 및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더위로 인해 약해진 장은 프로바이오틱스나 알로에겔을 섭취하면 보다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특별한 혜택!



골절수술 위험보장 보험 무료가입

- 가입대상: 개인택시 출고 고객
- 행사기간: 2015년 5월 ~ 8월 (4개월)
- 보장기간: 출고일로부터 1년 간
- 보장내역: 골절 수술비 최대 50만원 보상

금호타이어 특가 구매

- 적용대상: YF/ LF 개인택시 출고 고객
- 행사기간: 2015년 5월 ~ 8월 (4개월)
- 금호 16인치 택시전용 타이어
최대 42.4% 할인(공장도가 기준)

소모성 부품 특별할인

- 적용대상: 개인택시 출고 고객
(YF/ LF 쏘나타, HG 그랜저 택시)
- 행사기간: 2015년 5월 ~ 8월 (4개월)
- MOBIS 순정부품 20% 할인 쿠폰북 증정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LPI (MT): 복합 10.1km/ℓ (도심9.2km/ℓ, 고속도로:11.5km/ℓ) | CO₂배출량:132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50kg | 수동6단(4등급)
▶ 2.0 LPI (AT): 복합 9.6km/ℓ (도심8.3km/ℓ, 고속도로:11.7km/ℓ) | CO₂배출량:140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65kg | 자동6단(4등급) ▶ 2.0 LPI (ISG): 복합 9.8km/ℓ (도심8.6km/ℓ, 고속도로:11.6km/ℓ) | CO₂배출량:137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65kg | 자동6단(4등급) ▶ Y20 LPI (MT): 복합 9.9km/ℓ (도심8.9km/ℓ, 고속도로:11.5km/ℓ) | CO₂배출량:135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25kg | 수동6단(4등급) ▶ Y20 LPI (AT): 복합 9.3km/ℓ (도심8.1km/ℓ, 고속도로:11.5km/ℓ) | CO₂배출량:144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45kg | 자동6단(5등급) ▶ Y20 LPI (ISG): 복합 9.7km/ℓ (도심8.5km/ℓ, 고속도로:11.5km/ℓ) | CO₂배출량:139g/km | 배기량:1,999cc | 공차중량:1,445kg | 자동6단(4등급)
▶ HG 3.0 LPI (AT): 복합 8.2km/ℓ (도심6.8km/ℓ, 고속도로:10.6km/ℓ) | CO₂배출량:166g/km | 배기량:2,999cc | 공차중량:1,620kg | 자동6단(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현대자동차는 자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쁜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